

## 제3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2일 (수)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 상정된 안건

-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 1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14시 06분)

○위원장 김광운 의사일정 제1항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께서는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장님 안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충청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초광역건설환경과는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도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충청권의 경제·사회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확대하여 충청권의 환경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책자에 따라 초광역건설환경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초광역건설환경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위치는 정부대전청사를 거쳐 세종청사~조치원~오송 그리고 청주 도심,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총 64.4km의 사업으로 노선도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민간 투자비가 50%, 국비 35%, 지방비 15%로 총 5조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34년까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4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KDI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2034년까지는 협상자 선정, 협약 체결, 착공, 준공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천안~청주공항선 복선철도입니다.

경부선 천안부터 충북선 청주공항 시설 개량으로 철도 이용 효율화 및 충청권 연계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국제공항의 청주공항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위치는 천안~서창~오송~북청주~청주공항이며, 총 57km입니다. 9페이지 청주공항선 복선 철도 노선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5,122억 원, 국비 100%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24년 9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신축 연결 역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전철 전력 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설계 결과에 따라 앞으로 토지수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쪽, 광역BRT 신규 노선 및 사업 발굴입니다.

충청권 주요 도시 간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신규 광역BRT 노선을 발굴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세종~공주 간 1단계 사업에 이어 세종~청주, 세종~공주 간 2단계, 세종~천안 2단계 노선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이며, 사업 구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기간이 2021년부터 2030년 10년이었으나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6년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관련된 계획에 3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4개 지자체와 적극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저희 지방비 100%로 사업 기간은 올해 '25년과 내년 '26년까지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23년 10월, 충청권 초광역 UAM 사업 추진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였고, '23년 11월에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25년 3월 재정비 하였으며, 충청권 초광역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초광역 UAM 실무 협의를 통한 시범사업 지정 공동대응 및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른 2026년 공모 대비 올해 상반기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14쪽, 충청권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충청권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도 실무 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올해 1년 동안을 사업 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3월 18일, 저희 연합의회에서 충청권 4-H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 저희 4개 시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충청권 4개 시도 청년 후계 농업인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충청권 청년농부 워크숍 추진 및 개최 등 충청권 농업 지원을 확대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초광역 물환경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하천은 행정구역을 넘어 상·하류가 연속되는 특성이 있어 유역 차원에서의 물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세종과 충남에서는 2012년부터 금강 본류 등을 대상으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그 모니터링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 물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종·대전·충북·충남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초

광역 물환경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세종과 충남에서 진행하는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초광역 물환경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개 시도와 저희, 금강유역청 등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광역건설환경과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광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충청권 광역철도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1단계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시도랑 같이 연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 부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처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지금 1단계부터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 광역철도망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물론 4개 시도 시장님,지사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에 따라서 이 시기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게 좀 시의적절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4개 시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정확히 준비를 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여기 사무처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거 관련 단계 단계별로 해당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협조 체제를 갖춰야 이 부

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 관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와 있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각 시도 방문을 하고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준비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 요청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광역BRT 신규 노선 및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해서 여쭙보고자 합니다.

공주 KTX역이 혹시 준공된 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연도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올해로 공주 KTX역이 신설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KTX역 10주년 행사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침 10시쯤 시작하는데 열 번째 손님한테 사은품을 증정했습니다.

사실 KTX역인데 열 번째 손님한테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천 번째 손님, 백 번째 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이 활용에 대해서 충청권이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에서도 KTX역을 만들고 싶다, 또 타 지역에서도 만들고 싶다, 빨리 다니고 빠르게 움직이고자 해서 지역적으로 KTX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알겠으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있는 역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종에서 공주 1단계로 BRT 노선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곧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단계가 세종에서 공주의 KTX역까지 연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세종~청주도 세종터미널까지, 또 세종~천안도 홍익대에서 KTX역까지.

이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KTX역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자원 문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내년 정도에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거지요? 세워 본다는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박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준비되고 있나요?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3개를 다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 중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

○ **박미옥 위원** 관련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KTX역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 충남과 충북이 관광교통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문체부 공모 사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청주공항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이동을 해서 공주·부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교통 융합사업이 공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연관된 사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시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글썄요, 종합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면 지역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무 오랜 시간, 공주만 해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거의 유명무실한 역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면서 노력을 했으나 실효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30년이면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인구도 줄고, 과연 어떤 대비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용역, 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공모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한 가지라도 중점을 두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공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챙겨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렇게 오랜 세월, 돈도 돈이지만 공모하다가 사람 죽을 거 같아요, 이거. 만날 공모만 하다가 공모 떨어지면 다시 또 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똑같은 케이스로 세종에서 이인역을 거쳐서 탄천까지 가는 노선의 도로 공사도 무산이 됐잖아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 온 일들이 지역민들한테는 오히려 아예 시작도 안 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주변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주변의 땅값만 올리고 주변의 상실감은 계속 깊어져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단편적인 것보다는 다각적인 방도를 모색해서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 부분 확실히 챙겨보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BRT 관련된 권한에 대한 사업을 위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부처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 연합으로 넘어오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진행할 때 위원님들께 도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박미옥 위원** 그런 권한이 저희한테 이양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기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아무래도 저희한테 BRT 관련된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한 부분, 준공에 대한 면허 승인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위임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부처에서는 위임을 해 준다고 했지만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이게 위임이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미옥 위원** 예, 애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청년 농부 육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은데 예산이 7,000만 원이예요,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각 4개 광역 시도에서도 주로 청년 농업인들은 4-H와 연관돼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4개 권역의 회장을 묶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네트워크 구성, 말 그대로 그런 구성 정도에 미치지 않을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분들이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안 되는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올해는 우선 처음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만남의 자리라고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활성화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구체화된 사업을 담아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4개 시도의 협의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실하게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입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저희 지금 이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실무자까지, 어제 저희 실무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운**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앞설 수도 없고 선도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민·관·정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도 있고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또 앞서서 가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행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업을 현안 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각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 부서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를 놓쳐서도 안 되고 먼저 앞서가도 안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공히 4개 시도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한마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모든 업무에 대해서 4개 시도 실무자들과 계속 만나고 찾아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4개 시도 방문을 할 때 혹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각 지자체별로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방문하신다는데 사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렵거나 번거로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확장이라든가 여러 문제는 충북도에서도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충청광역연합에서 뭔가를 빠른 시간에 이루고자 하다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운**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6쪽의 초광역 물환경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30년까지 34억 원, 5년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물환경 모니터링은 저는 정말 필요하고 이 사업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영역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때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자원 조달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박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예산액은 추정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강 유역은 저희 충청권이 같은 유역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시도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 면적이라든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비는 각 시도랑 협의를 해서 받을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강 유역에 대해서 기금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기금을 받는대거나 하는 걸로 준비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구체화된 점은 아직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시도 실무자들과 금강유역청 담당자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본격적인 거는, 저희가 기존에 세종하고 충남에서 하고 있던 부분을 샘플로 벤치마킹하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란희 위원** 기금을 만약, 왜냐하면 여기 사업 추진 관련 '26년 본예산 편성 준비를 2025년 8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금 관련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거는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가 알기로는 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반기 정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공모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가 아직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역청 관계자들과 계속 만나면서 그 부분은 논리를 만들어서 -공모가 아닌 기금을 받는 사업도 있으니까 - 그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4개 시도와 유역청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저희 충청권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찾아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그거에 대해 용역을 한대거나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우선은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박란희 위원** 접촉을 아직 안 하신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직은 죄송하지만, 시도 담당자와 연락 그 정도도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속도를 내면서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없이 본예산 편성이 가능해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본예산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업비,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반기에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답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박란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비 정도, 2억?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란희 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2억 정도의 예산을 일단 수립하고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예산 분배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과업 지시서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분배라고 하시면 시도의 분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박란희 위원** 저희가 정액제로 분배했잖아요, 각 시도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특수한 사업들, 어떤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포함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 부분은 저희 광역연합에 사업비 분담에 대한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균등 분배가 아니라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각 시도랑 협의를 해서 어느 시도가, 만약에 30이 될 수 있고 2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4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균등 배분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분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박란희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좀 죄송한데 저희가 첫 번째 예산을 세울 때는 4개 시도가 같은 금액을 내지 않았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14억씩 해서 균등 분배 했는데, 저희 규약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일상적인 경비는 균등 분배를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도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광사업, 추경 예산에 포함된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올해 사업은 4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으로 분배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연합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느 특정 시에 편중되지 않고 총칭 4개 시도가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거의 균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처음이니까 운영비와 사업비가 균등 분배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는 자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면 그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러한 준비들은 일찍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본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각 시도에서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사실은 시도하고 사전에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어느 정

도 규모가 정해지면 저희 의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사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올해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투 트랙으로다가 실무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거를 시도랑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되면 저희 예산으로 광역연합의회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시작은 했습니다.

○ **박람회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적은 인원이고 또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사실 지금 현재 자리매김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한 해 한 해 계속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들은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염려가 됩니다.

다른 시도처럼 하반기 때 의논을 하고 보고하고 이래서는 조금 늦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본예산에는 무리 없이 예산이 잘 태워질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고민이 큰 사항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개 시도가 똑같이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지금도 실무자들이 4개 시도 방문하고 만나다 보면 죄송하지만 약간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는 4개 시도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2개, 3개 정도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람회 위원** 충청광역연합이 시작되고 저희들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갔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우선은 저희가 사업 자체, 당장 외부에서 저희한테 질문 들어오는 게 가장 많은 게 “지금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합 출범 자체가 가장 큰 성과이지만 그거로 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사업 실적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티투어라든지 관광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장 보여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으로 저희 충청권에서 해외 사무소를 같이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충청권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저희가 하나의 사업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저희가 일반 지자체처럼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가장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올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면서 4개 시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이라고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시작이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미호강이 전에 미호천이었다가 강으로, 말하자면 승급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호강 자체가 ‘미호’라는 이름이 일본의 잔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총북하고 세종에 이걸 ‘동진강’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책위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처장님?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할 때 내용을 약간 들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책자에 보면 ‘미호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 충청광역연합에서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동진강’으로…….

동진강이 제가 듣기로 고려를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 내려오던 강 이름인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미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를 우리가 찾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총북하고 세종에 대책위원들이 만들어진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광역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역사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연합 차원에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 **위원장 김광운** 예, 처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

○ **출석 위원(7인)**

김광운 안치영 박란희 박미옥 박주화 이옥규 이한영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령

○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이수현

초광역건설과장 오세준